공의 세계를 색으로 경험하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㊱ SF영화 〈듄: 파트2〉


SF영화 〈듄: 파트2〉의 한 장면.

프랭크 허버트 원작 소설 영화화
희소 자원 둘러싼 갈등 등 그려내
허구의 세계, 영화적 장치로 표현

SF는 영어로 Science Fiction,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허구적 이야기를 지어내는 장르이고, 관습적으로는 '공상과학'이라고 번역하곤 한다. 그런데 사실 SF 장르 안에 '공상'과 '과학'에 고르게 방점을 둔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개봉 전부터 전 세계 흥행을 노린 〈듄: 파트2〉 같은 작품은 원작인 소설이나, 그 소설의 설정을 가져다가 만든 컴퓨터 게임이나 1984년에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연출했던 〈듄〉(이 영화를 당시에는 '사구',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라고 소개됐던 작품)이나, 최근작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설정이나 캐릭터, 서사는 과학의 범주로 해석할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장르는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한다. 클래식 음악에서 오페라라고 하면 대단히 고급스러운 장르의 연희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치정, 살인, 전쟁, 마법 같은 극단적 상황들을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스페이스 오페라도 비슷하다. 지금까지 규명된 천체물리학이나 우주과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미래 시점에서 어딘가 우주라고 설정된 배경을 모험과 전쟁이 펼쳐지는 무대로 만들고, 거기서 아주 극단적인 캐릭터들이 지구적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장르다.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용어 자체가 음악의 오페라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카우보이가 소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총질하며 원주민을 학살하거나 자기들끼리 영역 다툼하며 대결과 정복을 마초 오락물 장르인 호스 오페라(Horse opera)를 빗댄 대중적 '활극' 장르인 것이다. 미국 서부가 배경이면 호스 오페라, 우주가 배경이면 스페이스 오페라.

'우주활극'이라고 옮기는 게 적당한 스페이스 오페라는 이웃 농장이나 갱단과 겨루던 싸움이 우주전쟁이나 외계 침략이라는 스펙터클로 옮겨간 장르인 것이다. SF 가운데도 과학적 연구 결과나 가정, 이론적 정합성, 기존 지식에 대한 고증과 인용을 중시하는 〈마션〉이나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 탐사(Space Exploration) 장르보다 대중적이든 매니아 중심이든 오락적 쾌감이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비과학적이어도 되는 장르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과학보다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학적 방법'이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래 영화 자체가 테크놀로지의 예술인데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공상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의 거푸집이 돼 상상을 스크린에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가령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인 〈스타워즈〉의 경우, 조지 루카스 감독이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구현할만한 테크놀로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 편을 세상에 내놓고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영화에 적용하기 위한 회사인 ILM을 설립해서 처음 만들어진 내용 이전의 이야기들인 프리퀄과 그 이후 이야기 연작을 시리즈로 만들었다.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동안 IT산업은 주인공의 성장 속도를 훌쩍 앞질러 발전해 가면서 관객들이 맨 처음 봤던 작품에서 등장했던 깡통로봇이나 우주선과 광선검보다 오히려 영화 속 역사로는 더 이전인 시대가 테크놀로지로는 더 첨단으로 구현되는 동안, 영화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것은 동일자를 동일하게 만드는 시각적 재현이 아니라 영화 속 세계를 떠받치는 세계관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과거에는 과거의 중생을 제도할 과거불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는 우리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부처가 있고, 앞으로 인류가 어찌 될지 모를 먼 미래에는 그 시대를 품을 미래불이 있듯이 영화는 각 시대의 테크놀로지가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

스페이스 오페라가 설정하는 세계관은 현실이 아니기에 '공(空)'과도 같으나 그것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순간은 시각과 청각을 사로잡는 '색(色)'으로 이뤄진다. 1984년에 만들어진 〈듄〉은 원작 소설의 세계관을 영화적으로 시각화하기에는 당대의 기술 이상의 상상으로 대중을 끌어들이는데 앞세웠던 것이 감독이나 배우의 이름값이 먼저였다.

스파이스가 뭐길래 그걸 차지하겠다고 항공모함 크기의 모래 벌레가 출몰하는 다른 행성에 가서 원주민을 학살해가며 사막을 차지하려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욕망과 저항의 연대기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몰입할 수 있다.

세상이 어떤 정치적 제도와 권력의 사슬로 얽혀있든 아라키스 사막이나 코리노 제국, 하코넨 가문, 아트레이더스 가문, 프레멘 인들이 얽힌 제국과 식민지, 침략과 저항, 압제자와 해방을 이끄는 영웅, 전쟁과 난민, 정치와 종교의 경합은 저기가 별 세계라는 색을 걷어내고 보면 우리가 아는 색의 세계, 지구별의 역사, 인류의 여러 단면을 반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페이스 오페라로 심각하게 자본의 독점, 제국주의 침략, 원주민의 신화까지 훔치는 영웅놀이, 가부장 권력에 저항하는 모계의 여성 해방 전선, 자원 개발로 망가지는 환경,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수행보다 환각으로 구원을 바라는 인류의 암울한 처지 같은 걸 시시콜콜 사회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이런 장르 영화에서는 옵션이 될 수는 있어도 영화 자체의 재미가 되기는 어렵다.

블록버스터가 쏟아 부은 제작비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거치며 극장 스크린보다 OTT 플랫폼을 더 편하게 여기는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영화만의 무기를 챙겼고, 〈듄: 파트2〉의 무기는 그것이 바로 스펙터클이다.

이 영화의 스펙터클은 아주 섬세하게 조정돼 텅 빈 세계관을 압도적인 색으로 채운다. 이 영화의 본질은 바로 '색' 그 자체인 것이다. 관객들은 화면의 비율과 음향 설비가 제작진의 의도를 가장 생생하게 구현해 줄 상영관을 찾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예매 전쟁에 뛰어들게 됐다. 하루는 24시간인데 〈듄: 파트2〉의 상영회차를 보면 26시라는 임의의 시간대까지 관객을 모은다.

IMAX 상영관 가운데도 어떤 상영관이 수직과 수평을 오가는 화면의 변주를 잘 담아낼지, 서사를 담아내는 대사보다 음향처럼 울리는 음악이 잘 구현되는 좌석은 어디인지가 영화의 서사보다 더 중요해진다. 영화는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감을 자극하는 '색' 그자체로의 몰입은 합리적일 필요도 없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듄' 시리즈를 삼부작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 6권 가운데 2021년에 발표된 〈듄: 파트1〉이 채 1권도 다 담지 못했고, 〈듄: 파트2〉에서야 1권이 겨우 마무리됐다. 이래서야 〈듄: 파트3〉에서는 나머지 5권을 모두 담는 건 무리지 싶다. 게다가 앞으로 극장이든 영화든 테크놀로지는 또 바뀔 터이고. 그러니 〈듄〉 시리즈를 즐기는 방법은 모처럼 순수하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영화적으로 경험하며, 감각이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극단적 통로로 만드는 길이 극장이라는 걸 누리는 것이리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⑬

1. 싯다르타 태자의 청소년기 생활상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싯다르타 태자는 사문유관 후 출가를 결심하였다.
② 다양한 학문과 무예를 익혔고, 왕자로서의 자질을 닦았다.
③ 싯다르타 태자는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후세계를 추구했다.
④ 어린 시절 농경제에 참석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⑤ 사문유관을 통해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근본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해설 : 싯다르타는 늙고 죽음을 살아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02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날 때 마야왕비가 잡은 나무 이름은?
① 보리수 ② 핍팔라수 ③ 무우수 ④ 사라수 ⑤ 사과나무
해설 : 무우수의 뜻은 근심(고통)이 없다는 말로 마야부인이 태자를 낳을 때 근심과 고통이 없으셨기에 출산 중 잡으신 나무의 이름을 무우수라고 하였다.

3. 부처님의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내가 오직 존귀하도다. 이 세상은 온통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我當安之]'라는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① 싯다르타가 태어나서
②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③ 싯다르타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④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⑤ 부처님이 전도(포교)를 시작하면서
해설 :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존귀함과 존귀한 뭇 생명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럼으로 태어나시며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내가 오직 존귀하도다. 이 세상은 온통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라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 하셨다.

4. 싯다르타 태자의 생모인 마야왕비는 태자를 잉태하고 어떤 내용의 태몽을 꾸었는가?
① 흰색의 호랑이가 마야왕비를 업고 하늘로 날아갔다.
② 여섯 마리의 코끼리가 룸비니 동산에서 놀고 있었다.
③ 북두칠성의 7개 별 중에 하나가 떨어져 마야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④ 여섯 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와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⑤ 싱싱한 초록빛에 비취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공작 한 마리가 마야왕비에게 다가와 예를 갖추고 물러갔다.
해설 : 코끼리는 인도에서 동물 중 최고이며, 특히 흰 코끼리는 그중에서도 으뜸이기에 부처님을 비유하는 동물이다. 마야부인은 이 동물 중의 최고, 그중에서도 으뜸인 흰 코끼리가 옆구리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였다.

5. 마야왕비는 싯다르타 태자를 출산하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싯다르타 태자는 이모의 손에 의하여 양육되었는데, 그 이모의 이름은?
① 아르주나 ② 시하하누 ③ 야소다라
④ 마하빠자빠띠 ⑤ 위슈아미뜨라
해설 : 태자를 양육한 이모의 이름은 마하빠자빠띠로 나중에 여성의 출가가 허락된 후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6. 다음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선언하신 탄생게 내용이다. 탄생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내가 오직 존귀하도다. 이 세상이 온통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
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선언이다.
② 오직 나만이 존귀하기 때문에 공경하여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③ 세상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중생구제의 의미가 담겨있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불성을 지닌 인간 각자의 고귀한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⑤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밝혀 나 자신의 주체적인 자존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설 : 부처님께서는 모든 뭇 생명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며, 깨닫는 다면 부처님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럼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귀하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③ 2. ③ 3. ① 4. ④ 5. ④ 6. 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